

동구, AI 헬스케어 선도도시 '성큼'

조대·전대 등 의료 인프라 우수 공공의료 통합플랫폼 구축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개소

광주 동구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구는 21일 동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동구의 미래는 AI 헬스케어 산업이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AI기반 헬스케어 산업 비전을 소개했다.

동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에 선정돼 총 2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구는 스타



개소를 하루 앞둔 21일 광주 동구청창업지원센터 2층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에서 직원들이 신체협응측정과 교통사고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VR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트업 대상 기업을 병원과 연결시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제품의 성능 향상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은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다. 건강관리소는 지역민에게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22일 정식 개소했다.

건강관리소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키오스크 건강 문진·스트레스 관리실·AI 피부분석기·폐활량 측정기·체형 분석기 등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검진 기계 14종이 설치됐다. 설치된 기계들은 모두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이다.

건강검진에 40분 정도 소요되며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지원자 7000여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도 마련된 상태다. 관리소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과제로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벨트' 조성을 꼽았다. 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정학 동구청창업지원센터장은 "동구는 반경 2km 이내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밀집돼있는 등 헬스케어 산업 발전 환경이 우수하다"며 "3년 전부터 의료 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기업도 살고 시민들도 건강해지는 동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산구,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 교육 진행

광주 광산구는 21일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인 계약관리·보조금·제·세정·인허가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가를 초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상황별 사례와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중점 교육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과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광산구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남구, 백운광장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팀 모집

7월 5~6일 양일간 '그룹별 토론' 전 국민 대상... 내달 4일까지 접수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진행하는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그룹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21일 "오는 7월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2023 백운광장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다"며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및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마라톤하듯 긴 시간 동안 각종 아이디어 창출 등을 토론했으며 최종 결과

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아이디어'와 '스트리트 푸드존 방문객 유입 방안'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진대회 참가 접수 시에는 반드시 2~5명가량 팀을 구성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4일까지다.

참가 팀 구성원들은 대회 당일인 내달 5일부터 백운광장 일대 현장 투어를 비롯해 각 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의 취약점 등을 공유한 뒤 이튿날인 6일 오전에 각 팀의 최종 아이디어를 10분 분량의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발표하게 된다.

남구는 현장에서 곧바로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한 1팀과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발해 각각 시상금 100만원과 50만원, 25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백운광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62-674-9921)로 문의하면 된다. 강주비 기자

북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 개최

유명 로컬크리에이터들과 교류의 장

광주 북구가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로컬콘텐츠는 어떻게 로컬브랜드로 성장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국 유명 로컬크리에이터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상세 내용은 △사례발표 △창업 토크 △

네트워킹 등이다.

이외에도 로컬브랜드 상품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전시회와 시식회를 열어 참여자들 간 창업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만의 콘텐츠로 성공 창업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발

굴·추진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4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라운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자들의 디지털메뉴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창업 점포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